

안부는 있으나 위안은 없는 우리네 삶은 적막하다.

불모의 사막과 다를 것 없다고 토로해 보지만,

견딜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 소설가 이선(52) 씨의

신작 소설집 《사막에서 사는 법》은 제목 그대로

사막에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 들려준다. “견딜 이유는

무엇인가, 몰아치는 모래바람 속에도 희망의 전언은

묻어 있다”며 처진 어깨를 다독거린다. 전작前作

소설집 《귀신들》(민음사, 1997) 이후 ‘사막에서

사는 법’을 얻는데 든 시간이 8년이라 하니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인터뷰

속세에서 재미나게 사는

아홉 가지 방법



“삶이라는 것이 사막과 진배없을진대, 그 속에는 참으로 많은 얘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지요. 어찌 저리 평온할까 싶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문체투성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삶이란 스스로가 만든 함정이고 덮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설집 《사막에서 사는 법》은 진지하게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사막 같은 삶을 헤쳐 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아귀지옥도 유토피아’라는 고매한 깨달음이고

하니, 그 격이 사뭇 다르다. 소설 속에서 때 묻은 오지랴를 부끄럼 없이 내보이는 장삼이사들의 팔뚝은 참으로 건강하다. 본처의 집에 얹혀사는 첩이라 해서 가여워할 것 없다. 관청에 던져진 촌닭처럼 쭈뼛거리기는커녕, 숫제 본처의 눈알을 빼먹을 태세다(《사막에서 사는 법 1》). 금은방 주인이 된 잘 나가는 남편의 첫사랑을 볼 때마다 도지는 화병을 춤바람으로 삭이는 방 여사는 번번이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힐망정 씩씩함을 잃지 않는다(사막에서 사는 법 4). 온

갖 촌놈들이 거쳐 간 몸이라 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며 순정한 한때의 추억에 생채기를 내는 손님의 작태에도 꽤넘치 않는 카페 갈매기의 속없는 마담은 또 어떤가(사막에서 사는 법 7).

● “‘무소유’라는 것은 산 속에서나 통할 법한 처세지요. 속세에 살면서 무소유를 따르려 하니 쉬이 피곤하고 쓸쓸한 겁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는 못됩니다. 상처를 갖고서도 부지런히 부대껴야 합니다. 상처가 더나고 아물어 글은살이 생길 즈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이번 소설집 《사막에서 사는 법》에서 이씨는 ‘재미’라는 자신만의 고유한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소설집 속에 담긴 아홉 편의 단편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재미가 각별하다. 〈사막에서 사는 법 1〉에서 본처와 첩의 한집살이라는 상황도 기가 막히지만, 죽은 남자와의 살아생전 인연에 누가 더 애뒀었던가, 입씨름을 벌이는 대목은 압권이다. 오줌을 지리는 몹쓸 병을 가진 청양택이 “열심히, 꼼꼼하게, 야무지게” 지린내 도장을 곳곳에 찍으며 버릇없는 머느리를 길들이는 〈사막에서 사는 법 6〉을 보고 있으면 ‘유쾌 통쾌 상쾌’ 하다.

그러나 이씨의 소설에는 재미만 있지 않다. 이씨는 재미를 지렛대 삼아 간과했던, 혹은 간과하고 싶었던 불편한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바투 들이댄다. 이웃의 행복을 건디지 못하고 불행을 캐묻는 여자의 아찔한 얼굴을 볼 때면 얼굴이 화끈거리고(사막에서 사는 법 9), 아내의 자살소동에 지친 남자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아내를 죽게 내버려두고 싶었다고, 밀어버리고 싶었다고 고백할 때는 아찔하기까지 하다(사막에서 사는 법 3). 재미없는 소설이 횡행하는 오늘, 소설의 본령이 여전히 ‘재미있는 이야기’에 있음을, 덤으로 묵직한 페이스까지 선사할 줄 아는 이씨의 필력이 미답다.

● “소설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잡언이나 매끄러운 문장을 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형상화할까 고민하지요.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뒤가 찻찻한 그런 상황은 사실 의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수다스러운 이야기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요.”

이씨는 ‘재미’와 ‘페이스’라는 무기의 유효성에 대해 때때로 고민하기도 했다. 자신의 소설과는 다른 경향의 소설이 주류를 이뤄 평단과 독자에게 사랑받는 것을 볼 때면, 자신의 방법론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들었다. 고민과 의심은 깊었으나 오래 가지는 않았다. 다른 이들의 것을 욕심내 따를 것 없다는 것을, 자신이 가진 고유한 그것을 부지런히 갈고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임을 이씨는 깨달았다. 이번 책 속에는 없는, ‘사막에서 사는 법 10’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 “‘통속적인 일상을 담은 세레소설’이란 평가를 들을 때면 속상합니다. 삶을 재현한 것이 소설이고 보면 통속적인 일상이 안 끼어든 소설이 있거나 하겠습니까. 에밀 아자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프랑스 문단과 독자를 감쪽같이 속인 소설가 로맹가리처럼 그런 사건을 벌여보고 싶어요. 이번 소설집에는 작가의 말과 해설을 빼고 소설만을 담아두었는데, 다음 책을 낼 때는 약력과 사진도 이에 빼버릴까 합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독자들이 제 소설을 자유롭게 읽어주었으면 해요.”

이씨는 등단 이후 십 년 간 여느 작가보다 부지런히 소설을 썼다. 장편 《행촌 아파트》를 비롯한 몇 편의 단편은 TV드라마로 각색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8년 만의 신작’이라는 꼬리표에는 게으름이 묻어 있는가란 질문에, “소설가란 존재는, 쉬고 있어도 끊임없이 쓰고 있는 존재”라고 답한다. 소설쓰기는 잠시 쉬었을망정, 소설가란 이름에는 성실히 복무했다는 얘기다. 바지런히 여섯 권의 책을 내고 보니, “소설이란 것이 내게 어떤 열쇠가 되었는데가?” 긴 시간 자문하게 되었다. 한편 장편 《우리가 쏘아 올린 파이어니어호》에 대한 반응이 미미한 것도 한 이유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저 자신에게 가장 절실했던 이야기가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만 허탈해진 것이다.

● “오십대는 참으로 고달픈 나이입니다. 생을 마감하는 어른들을 살펴야 했고, 일가를 이뤄 시작하는 지식들을 끌어야 했으니, 두 날개 죽지가 찢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독자들에게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정녕 그 말이 맞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십을 넘은 지금 소설을 제대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찻찻한 소설은 계속되어야지요.”

사람에게 지쳤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듯, 소설읽기에 지쳤을 때 읽고픈 소설이 있다. 이씨의 소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야 소설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씨의 겸손에 덩달아 힘도 신도 나지만, 한편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씨 자신이 슬쩍 말을 흘렸듯, 한국판 로맹가리로 이름을 바꾸고 문단에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일 아니겠는가. 이씨의 새로운 변신을 간파하는 방법은 그러나 어렵지 않다. 죽었다 깨어나도 소설의 본령이 ‘재미 있는 이야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씨는 결코 배반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